光州日報 Weekend

제1744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5월 6일 (음력 4월 9일) 토요일

The Kwangju Ilbo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6(土)	7(日)
흐리고 비	비온뒤 갬
17 / 20℃	15 / 26℃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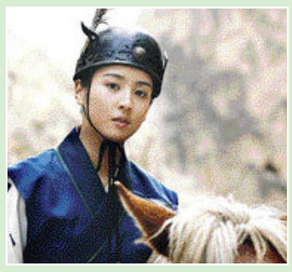
- 리메이크 열풍 ②
- 완도 금일도 마지막 해녀 ③

Jeollado

- 풍수-강진의 명혈들 ⑦

Entertainment

- '주몽'의 여장부 한혜진 ⑧



- 베일 벗는'미션 임파서블3' ⑨

Books

- 댄 브라운 '디셉션포인트' ⑩
- 키워드로 들춰본 '한국美' ⑪

Wellbeing

- 식품 탐구 - 브로콜리 ⑬

- 골프 실전 클리닉 ⑲

예비후보들 공약 발표 못하고 정책자료집도 못내고…

'선거법 해프닝'

"질문 없습니까" "제발 질문 좀 해주세요"

4일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이형석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회견문을 낭독한 뒤 기자들에게 질문을 '애걸'했다. 예비후보가 공공장소에서 브리핑하듯 일방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기자들에게 '질문' 애걸

할 소지가 있지만,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면 괜찮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8일 이후부터 공약을 공개할 수 있으며, 그 이전까지는 개략적인 방향 정도만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범석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는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려다 같은 이유로 행사를 대폭 축소, 유권자들을 제외한 채 회견을 가졌다. 당초 서 후보는 '7대 분야 49개 실천공약 및 권역별 발전계획'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하려다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전남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포기하고 말았다.

2004년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측도 얼마 전 선관위로부터 "'공약'이라는 말을 되도록 쓰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후보 측이 "그러면 어떻게 공약을 소개하느냐"고 황당해 하자 "대신 '구상' 이나 '생각'이라는 용어를 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 3월초 공식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 중이던 대전 지하철은 엄격한 선거법때문에 시운전때 사람 대신 대형 플라스틱 물통을 싣고 다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같은 해프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지난 2004년 개정된 엄격한 선거법 때문이다. "돈 안 쓰는 선거를 하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고시 공부하듯 선거법을 외워야 할 판"이라는 게 각 후보들의 불만이다. 심지어는 선관위 관계자들도 세세한 부분은 몰라 바로 답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 안맞는 규정 많아

지난달 24일 광주시선관위 주최로 열린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실천방안 토론회'에서도 각 정당 관계자들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정책자료집을 배포할 수 없는데다 선거 공보물 분량도 12쪽으로 제한돼 그 안에 모든 정책내용을 담기가 어렵다"며 선거법 제약에 따른 정책선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위성미 '性벽' 넘었다

KPGA SK텔레콤 오픈 컷오프 통과

'1천만 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7전8기 끝에 남자 무대 컷 통과를 해냈다.<관련기사 18면>

위성미는 5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파72·7천135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겸 아시아프로골프 투어 SK텔레콤오픈 이틀째 2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중간합계 5언더파 139타가 된 위성미는 컷 통과 타수 143타를 4타나 앞서는 여유있는 성적으로 컷 통과를 확정했다.

지난 2003년 캐나다프로골프투어 베일밀스오픈, 미국프로골프(PGA) 2부투어 보이시오픈, 그리고 PGA 투어 소니오픈 3차례, PGA 투어 존디어클래식과 일본프로골프 카시오월드오픈 등 7차례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위성미는 부모의 고국인 한국에서 드디어 남자프로대회 컷 통과의 꿈을 이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南北 16일 'DJ 방북' 실무접촉

北측, 어제 南에 전화통지문

남북이 오는 16일부터 금강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통일부 양창석 홍보관리관은 5일 "북측이 오늘 오전 전화통지문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방북, 평양 방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5월 16일부터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3명의 실무자 등 모두 4명이 실무접촉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양 홍보관리관은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측 제안을 수용하고 DJ측에 관련 내용을 전하는 동시에 북측 대표단 인원과 마찬가지로 대표 1명과 실무자 3명 등 모두 4명으로 실무접촉 대표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에는 DJ측 인사도 포함될 것이라고 양 홍보관리관은 말했다. 우리측 실무접촉 대표로는 북측에 맞춰 차관급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대학생 운동본부는 오는 9~11일 금강산 현대문화회관에서 남북 대학생 대표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대학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등 남측 대학생 대표자 370여명과 북측 대학생 대표자 120여명이 참여해 '공동선언 실천과 대학생의 역할'을 논의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인 5일 광주시 상무지구내 무각사에서 신도들이 아기부처님 몸을 물로 씻는 관불(灌佛)의 식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